



한화의 잔여경기 6게임 상대는 KIA와 두산, 롯데, NC, SK다. 공교롭게도 한국시리즈와 준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의 캐스팅보트를 한화가 쥐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한화 이상군 감독대행은 "부담 갖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대로 하겠다"고 의연함을 보였다.

# 가을야구 캐스팅보트 손에 쥔 한화

## 올 PS 운명은 한화에 달렸다?

잔여경기 6경기 모두 5강권 팀과 상대 KS 직행·PS 대신 한화전 결과에 달려 이상군 대행 "남은 경기 최선 다할 것"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수가 동일한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을 의미한다. 25일 까지 5강의 운명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아직 정규시즌 우승팀과 3~4위의 주인이 가려지지 않았다. 한국시리즈에 직행하는 것과 플레이오프(PO)를 거치는 것, 곧바로 준PO에 올라가는 것과 와일드카드(WC) 결정권을 치르는 것은 선수단 운영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특히 WC 결정권이 신설된 2015 시즌 이후 1위부터 5위 까지 각각의 순위에 의미가 커지면서 경쟁이 더

욱 치열해졌다. 기존의 준PO 제도에선 홈 어드밴티지 외에 3위와 4위의 차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큰 변화다. 한화의 잔여시즌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한화의 잔여경기는 6게임이다. 팀 순위는 이미 8위(61승1무7패)로 굳어졌지만, 잔여경기 상대를 고려하면 매 게임 허투루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공동 선두 KIA(82승1무55패)와 두산(82승3무55패), 3위 롯데(77승2무62패), 4위 NC(76승2무62패), 5위 SK(73승1무67패)를 모두 상대해야 해서다. 26일 시작에서 롯데를 만난 뒤 하루 쉬고 28~29일 KIA를 홈으로 불러들여 2연전을 치른다. 이후 원정경기 없이 30일 SK, 10월 1일 두산, 10월 3일 NC와 홈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3위 롯데와 4위 NC의 게임차는 0.5경기에 불과하고, 5강 확정까지 매직넘버 2를 남겨둔 SK도 매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

다. 공동 선두인 KIA와 두산의 상황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한화전 결과에 따라 이들 5개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화 이상군 감독대행은 25일 "어떻게 일정이 그렇게 나왔나"면서도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대로 하겠다. 누군가를 봐줄 입장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감독대행은 잔여경기 선발등판 일정도 미리 공지한 상태다. 26일 김민우, 28일 카를로스 비야누에바가 차례로 등판할 예정이다. 10월 3일 NC와 시즌 최종전 선발도 김민우다. 그 사이에는 김재영과 안영명, 김범수가 등판할 예정이다. 배영수는 남은 시즌에 선발 등판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불펜에서 대기한다. 일찌감치 잔여시즌의 플랜을 공개한 것이다. 이 감독대행은 "마지막 5경기는 홈에서 치른다. 팬들을 위해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ML로도 번지는 '반 트럼프'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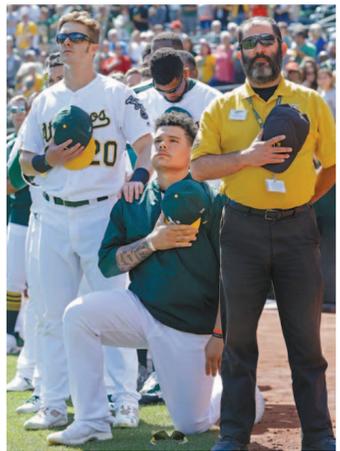
정재우 전문기자의 MLB Tracker

커리 초청 첩회 등 스포츠 스타들과 갈등 양키스 사바시아 "우승해도 백악관 안 가" 오클랜드 맥스웰도 '무릎 꿇기' 항의 동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미국우선주의', '백인우월주의'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스트롱 맨'의 극보수적 행태와 거친 언사로 인해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다. 최근에는 미국프로풋볼(NFL)과 미국프로농구(NBA)의 여러 스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NFL과 NBA 전반에 '반(反) 트럼프' 정서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스티븐 커리 옹호하고 나선 CC 사바시아  
뉴욕 데일리뉴스는 24일(한국시간) "뉴욕 양키스 베테랑 좌완 CC 사바시아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를 받더라도 백악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바시아는 이날 로저스센터에서 벌어진 토론토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나는 트럼프의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내가 백악관에 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바시아의 이 같은 발언은 NBA의 슈퍼스타 스티븐 커리(골든스테이트)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팀의 2016~2017시즌 우승을 이끈 커리가 관례에 따른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관심이 없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트위터로 "커리에 대한 초청은 철회됐다"고 응수한 것이다. NBA의 또 다른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와 은퇴한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가 즉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여론은 악화일로로 들어섰다.

●NFL의 '무릎 꿇기' 세리머니에 동참한 브루스 맥스웰  
오클랜드 포수 브루스 맥스웰은 24일 텍사스



오클랜드 백업포수 브루스 맥스웰(가운데)이 25일(한국시간) 오클랜드 콜리세움에서 벌어진 텍사스의 홈경기 직전 국가연주 때 선수인종 차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은 '무릎 꿇기'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오클랜드(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스

와의 홈경기에 앞선 국가연주 때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선수인종 차별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지난해 NFL에 등장한 '무릎 꿇기' 세리머니가 메이저리그에선 처음으로 맥스웰에 의해 시도됐다. 맥스웰은 25일 텍사스전을 앞두고도 똑같은 동작을 취했다. NFL의 명문 샌프란시스코 49ers 소속이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은 지난해 8월 시범경기 직전 국가연주 때 경찰의 총격으로 후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데 대항 항의의 표시로 무릎을 꿇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던 트럼프는 이에 "미국이 싫으면 떠나라"고 대응했고, 캐퍼닉은 2016시즌 후 소속팀을 찾지 못했다. 사실상 '패션쇼'에 걸려 캐퍼닉이 무지개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엘라 배마주 상원의원선거 공화당후보 지원유세 도중 1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며 "개XX"라는 욕설을 내뱉자 NFL 사무국까지 이에 반발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된다.   
jace@donga.com

## 오승환, 시즌 10호 피홈런 시즌 6패...방어율 4점대로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이 25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와의 원정경기에서 1이닝 2안타(1홈런 포함) 2실점으로 시즌 6패째(1승20세이브7홀드)를 떠안았다. 하루 전 같은 상대를 상대로 1이닝 1실점을 기록했던 오승환의 시즌 방어율은 3.86에서 4.10으로 치솟았다. 오승환의 방어율이 4점대로 올라간 것은 7월 20일 뉴욕 메츠전 이후 67일 만이다.

1-1로 팽팽히 맞선 5회말 세인트루이스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한 오승환은 첫 타자 크리스토퍼 보스틱에 안타를 내준 뒤 곧바로 스탈링 마르테에게 좌월 2점홈런을 얻어맞았다. 시속 90.9마일(약 146km)짜리 직구를 토타 당했다. 시즌 10호 피홈런. 지난해 79.2이닝 동안 5홈런을 내줬던 오승환은 올 시즌 59.1이닝 동안 10개의 홈런을 헌납했다. 마르테에게 홈런을 내준 뒤 세 타자를 연속 범타처리하며 이닝을 마쳤지만 결국 1-4로 패했고 오승환은 패전 명예를 안았다.   
김도한 기자 dohoney@donga.com

## 스포츠도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5일), 팀순위, Before & After 7-Game, 팀간승패-남은경기

타격, 방어율, 팀 순위, WHIP

MLB (25일), 경기결과, 해외축구 (25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세리에A 경기결과, 라리가 경기결과, 에레디비지 경기결과, 프로골프 (25일), PGA TOP10 투어 챔피언십 최강라운드

아마추어 경기결과 (25일), 2017 KBO리그, 아마추어 경기예고 (26일),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사격